

융복합시대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김광숙^{1*}, 신경실², 이훈민³
¹흥진고등학교 전문상담사, ²(법)동광원, ³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Kwang-Sook Kim^{1*}, Kyoung Sil Shin², Hoon-Min Lee³

¹Hungjin Highschool Professional Counselor

²Dongkwangwon

³Seoul Guro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에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 있어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초4 패널 6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합한 1,82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키워드 :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 부정적양육태도, 또래애착, 스마트폰 의존도, 청소년,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s'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and prove the medit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r the study, th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the data from 1,97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and negative parents' attitudes influenced adolescents' poor attachment. Seco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s' attitudes had a effect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Third, parents' attitudes directly influenced adolescents' smart phone dependency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 subjects's poor attachment.

Key Words :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Smartphone Dependency, Adolescents, Convergence

1. 서론

스마트폰은 휴대 및 접속의 편의성, 사용의 간편성, 다양한 서비스, 기업의 전략적 마케팅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그 보급률의 신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와 인간생활에 편이를 제공한 것은 확실하지만 기타 과학기술과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은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우울, 불안 및 공격성 등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2], ADHD(과잉행동장애)증상과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3], 신체적 통증 및 피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4].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5].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폐해는 특히 초기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중독률은 고등학생 29.5%, 초등학교 23.6% 인데 반해 중학생의 중독률은 무려 34.7%로 가장 높았다[6]. 따라서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의 적용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는 기기가 지니는 특수한 매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상호정보 교환, 인터넷상의 및 음악듣기, 타인과 정보공유, 위치정보, 유용한 정보검색, 자신의 소재를 부모와 공유하는 등의 스마트폰의 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점 역시 스마트폰 사용증가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7,8]. 또한, 기기의 다양한 용도나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외부환경 요인을 부모요인과 또래관계요인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독립의 시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요인이 중요하다. 이미 권오형은 부모의 양육 방식은 휴대전화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9,10]. 청소년이 부모와 갖는 의사소통이 민주적일 때 휴대전화의 과다사용 정도는 낮아지며[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2].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존재인 청소년은 그들의 스마트폰 사용양상까지 부모의 양육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또래관계 애착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비합리적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13]. 즉,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를 통하여 형성되지만 부모의 영향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새로운 교우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애착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또래관계의 형성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집단의 교우관계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달리 스마트폰의 과 의존 위험군일수록 또래관계의 형성이 보다 활발하며[15],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우관계 형성 또는 게임, 오락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빈도는 또래관계 애착이 높을수록 높기도 하다[16]. 이와 같이 또래관계와 스마트폰 사용과의 상관관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의 고학년과 중, 고등학생으로 그 연구 대상과 범주 분류 방식이 다른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쳐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한층 증감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의존도는 단순히 청소년 자신만의 문제와 함께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중 기기적인 요인을 제외한 부모요인과 또래관계요인에 한정하여 선택적인 접근을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한적인 접근방법은 프로그램 적용상 스마트폰의 과의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 양상을 볼 때 기기가 지니는 매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제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스마트폰 의존도와 또래애착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의존도의 예방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 3)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계에서 또래애착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해 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하여 초4패널 6차년도(2015)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는 1,823명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본 척도는 이시영 외가 제작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7], ‘휴대전화 없으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응답범주를 역코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74로 나타났다.

2.2.2 부모의 양육태도

본 척도는 허묘연이 개발 부모 양육태도 검사(총 43문항) 문항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8].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하위요인을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로 분류하였으며 긍정적양육태도 척도는 7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응답범주를 역코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73이다.

부정적양육태도 척도는 14문항으로 ‘나에 대한 걱정을 덜 하셨으면 좋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응답범주를 역코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24이다.

2.2.3 또래애착

본 척도는 Armsden & Greenberg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별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별로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10,19]. 청소년의 또래애착 척도는 9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 준다’,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등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고 6문항의 응답범주를 역코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잘 형성된 것을 뜻하며, 또래애착의 Cronbach’s alpha값은 .0.829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본 연구에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분석

하기 위해 베이런과 케니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20]. 이를 통해 변수 간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본 연구모형이 활용한 자료가 얼마나 잘 적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은 Sobel test을 적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23)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n	946	51.9
	woman	877	48.1
grade satisfaction	very unsatisfaction	108	5.9
	unsatisfaction	680	37.3
	satisfaction	850	46.6
pin money	very satisfaction	185	10.1
	less than 20,000 won	450	24.7
	moer 21,000won~less than 30,000 won	390	21.4
	moer 31,000won~less than 40,000 won	260	14.3
	moer 41,000won~less than 50,000 won	421	23.1
father education	moer 51,000won	302	16.6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827	45.4
	professional college degree or higher	988	54.2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920	50.5
	professional college degree or higher	895	49.1
family composition	parent+ child	1603	87.9
	other	220	12.1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244	13.4
	over 25, million won ~ less than 36 million won	374	20.5
	over 37 million won ~ less than 48 million won	389	21.3
	over 48 million won ~ less than 60 million won	490	26.9
	over 61 million won	326	17.9
economic level	I can not live	171	9.4
	moderate	1163	63.8
	a good buyer	489	26.8

먼저 남학생과 여학생의 분포(각각 51.9%, 48.1%)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본인의 성적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788명(43.2%), ‘만족과 매우 만족’이 1,035명(56.7%)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청소년의 가족 구성원 형태는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가 1,603명(87.9%)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연소득은 4,900만원 이상~6,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고(26.9%), 다음으로 3,700만원 이상~4,800만원 이하(21.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부친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상(54.4%), 고졸 이하(45.6%)순이었으며, 모친의 경우는 고졸 이하(50.7%), 전문대졸이상(49.3%)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청소년의 한 달 용돈은 2만원 이하(2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만 1천 원~5만원 (23.1%), 2만 1천 원~3만원 (2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보통(63.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고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9.4%가 응답하였다.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서술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각 변인들의 평균값(표준편차sd)을 살펴보면,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의 평균값은 3.035(sd .523), 부정적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413(sd .440), 또래애착의 평균값 3.148(sd .444), 스마트폰 의존도의 평균값은 2.279(sd .63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 중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의 평균은 다른 변수의 평균값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또래애착과 긍정적양육태도의 평균값은 중간값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 분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 값과 첨도 값을 확인해 보면,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며, 첨도의 절대값 또한,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어 각 변인들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적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직렬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r=-.141, p<.01$) 및 부정적 양육태도($r=-.121, p<.01$)와 부(-)적인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823	1.00	4.00	3.035	.523	-.262	.483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823	1.21	4.00	2.413	.440	.539	.922
peer attachment	1,823	1.22	4.00	3.148	.444	.094	-.020
smartphone dependency	1,823	1.00	4.00	2.279	.635	.329	.165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래애착($r=.387, p<.01$)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애착($r=-.203,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스마트폰 의존도($r=.22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의존도($r=-.160, p<.01$)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smartphone dependency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121**	1		
peer attachment	.387**	-.203**	1	
smartphone dependency	-.141**	.227**	-.160**	1

** $p<.01$

3.3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3.1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 및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인 성별, 한 달 용돈,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성적 만족도, 변수, 모학력은 더미처리 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특히 모학력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으로 재코딩하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먼저 [Model 1]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변인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모학력 등과 또래애착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명목변수인 성별 [Model 1]에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와 부정적양육태도의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에 또래애착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Model 1]에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변인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성별($\beta=-.141, t=-6.087, p<.001$)과 주관적 성적만족도($\beta=-.106, t=-4.576, p<.001$)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용돈($\beta=.088, t=3.737, p<.001$)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충동성이 청소년의 부적절한 스마트폰 의존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21]. 즉, 여학생이고 주관적 성적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Model 2]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부모의 긍정·부정적양육태도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한 달 용돈과 주관적 성적만족도변인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간 떨어졌지만, 성별은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양육태도 변인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면, 먼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00, t=-4.371, p<.001$). 이는 부모가 자녀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일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로 청소년을 돌볼 때 청소년은 스마트폰

의존(중독)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부모의 부정적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37, t=10.436, p<.001$).

즉, 부모가 자녀를 돌봄에 있어 비밀관성 있는 양육과 과잉기대 및 과잉간섭을 동반하게 되면 청소년은 부담감과 불만을 갖게 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점점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18]. 또한, Model 2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Model 1]에 비해 6.9%($F=31.581, p<.001$) 증가하였다.

[Model 3]에서는 또래애착 변인의 추가로 인해, [Model 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부모의 긍정적양육태도($\beta=-.100, t=-4.371, p<.001$) 변인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beta=-.068, p<.01$) 약간 낮아졌다.

부정적양육태도 변인 또한,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력이($\beta=.223, p<.001$)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Model 3]에 투입된 또래애착 변인과 스마트폰 의존도관

련성에서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청소년이 또래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돈독하면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심심해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스마트폰 의존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odel 3]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Model 2]에 비해 7%($F=29.567, p<.001$) 증가하였고, 또래애착 변인과 스마트폰 의존도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3.2 연구모형 검증

Table 5는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 있어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분석방법의 단계를 이용하여 회귀

Table 4.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er attachment on smartphone dependency

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79***	-.141	-6.087	-.226***	-.178	-7.892	-.233***	-.183	-8.140
pin money	.039***	.088	3.737	.030**	.068	3.024	.031**	.070	3.085
economic level	.009	.019	.746	.016	.033	1.332	.018	.037	1.481
grade satisfaction	-.090***	-.106	-4.576	-.068***	-.080	-3.541	-.060**	-.070	-3.074
mother education	.003	.003	.103	.008	.006	.263	.009	.007	0.289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121***	-.100	-4.371	-.082**	-.068	-2.784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342***	.237	10.436	.322***	.223	9.731
peer attachment							-.132***	-.092	-3.728
F	14.978***			31.581**			29.567		
R ²	.040			.109			.116		
Adjusted R ²	.037			.106			.112		
R ² 변화량	.039			.069			.007		
Durbin-watson				1.968					

*p<.05, **p<.01, *** p<.001, Gender(Man:1, Woman:0)

분석을 실시하였다[20]. 첫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회귀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을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인 또래애착이 종속변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beta=-.141, t=-6.076, p<.001$)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on smartphone dependency in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Variable	B	β	t	F	R ²	adjusted R ²
① → ③	-.171 ***	-.141	-6.076	36.920 ***	.020	.019
①, ② → ③	-.113 ***	-.093	-3.715	31.039 ***	.033	.032
	-.178 ***	-.124	-4.968			
① → ②	.328 ***	.387	17.925	321.307 ***	.150	.150

* $p<.05$, ** $p<.01$, *** $p<.001$, positive parenting attitudes=①, peer attachment=②, smartphone dependency=③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을 투입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 있어 또래애착으로 인해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beta=-.093, t=-3.715, p<.001$)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124, t=-4.968, p<.001$). 이처럼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에 있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beta=.387, t=17.925, p<.001$).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을 할수록 또래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은 긍정적인 매개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힘들 때 용기를 주며 합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자라면 친구를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며, 신뢰감이 형성되어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아 의존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beta=.227, t=9.958, p<.001$)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수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을 투입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 있어 또래애착으로 인해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으며($\beta=.203, t=8.774, p<.001$) 또래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119, t=-5.135, p<.001$). 이처럼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의존도 간에 있어 부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매개변수인 또래애착에 통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beta=-.203, t=-8.865, p<.001$).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은 4.1%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을 할수록 또래와 애착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이 또래와의 관계가 좋게 형성될수록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하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은 긍정적인 매개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과잉간섭과 비밀관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면

친구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지며, 신뢰감이 잘 형성되지 않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성장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감이 쌓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 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Table 6. The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smartphone dependency in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Variable	B	β	t	F	R ²	adjusted R ²
① → ③	.328 ***	.227	9.958	99.171 ***	.052	.051
①, ② → ③	.293 ***	.203	8.774	63.460 ***	.065	.064
	-.170 ***	-.119	-5.135			
① → ②	-.205 ***	-.203	-8.865	78.579 ***	.041	.041

*p<.05, **p<.01, ***p<.001, negative parenting attitudes=①, peer attachment=②, smartphone dependency=③

Table 7과 같이 연구모형의 효과 검증은 Sobel test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p <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7.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Variable	Sobel test	p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 peer attachment → smartphone dependency	-18.222	.000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 peer attachment → smartphone dependency	8.913	.000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과, 또래애착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의 의존도사이에서 지니는 경로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고, 생활에 대해 적절한 지도와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낮추어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합리적으로 양육을 하며, 민주적인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춘다는 연구와 일치할 한다[13,17,18].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과 변화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는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양육태도가 비민주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를 비일관적으로 대하여 태도를 모호하게 취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하여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 또는 생활에 과도한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민주적 대화를 갖는 기회를 자주 가지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자녀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인다. 권오형은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즉, 부모는 평소 자녀의 고민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권위주의나 가부장적인 태도는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셋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에 미친다. 부모가 자녀와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의사소통과 신뢰도가 좋은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감독, 애정적, 합리적 설명을 하 주요인으로 갖고 있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또래와의 의사소통, 신뢰, 소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선행연구와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22,23]. 또한,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은 또래관계에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친구관계의 질도 높게 나타났다[24].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비일관적인 태도로 지니거나 지나친 간섭을 할수록 청소년은 또래애착에 있어 신뢰감을 쌓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또한, 소통에 어려움도 겪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는 부모의 과

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또래애착에 있어 소통과 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23].

이처럼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중요한 원인이 됨을 볼 수 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에 따라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모방하여 친구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놀이문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성별, 연령, 가족관계 등의 차이에 따른 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또래관계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돈독히 형성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의존도보다 낮다. 또래관계의 애착이 점차 중요해지는 청소년시기에는 또래관계의 형성이 견고해질수록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성향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며[14], 또래관계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15]. 또 다른 연구에서도 긍정적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간에 또래애착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5]. 이와같은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도와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휴대폰)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필수이지만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또 다른 사회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또래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및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적위주로 돌아가는 사회문화는 또래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재능 위주의 교육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및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으로 전환하면 또래 간에 애착관계 형성도 잘 되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모의 긍정적·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또래애착 등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문화의 정립을 위한 예방과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점을 안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의존도와 스마트폰 의존도를 분리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스마트폰 의존도란 질문이 청소년들 스스로에게 민감성이 떨어져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대한 질문이 자기보고식으로 기입되어 응답자의 주관을 제외하기는 어려웠으며, 각자 기입하는데 꺼려하는 문항에 대한 무응답을 통제하기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셋째, 이미 구축되어 있는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척도 구성에 있어 제한점이었고, 이에 따른 논의를 확대하여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충하여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고무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과 변화의 동향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M. S. Kweon, G. U. Nam & B. K. Seo. (2015). *2015 The Survey on Internet Overdependenc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http://www.nia.or.kr>
- [2] E. M. Park & K. H. Park.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Smart 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7(2), 209-224.
- [3] J. R. Ryu & Y. H. Ki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Symptom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Stress Coping Strategi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2), 563-578.
DOI : 10.23844/kjcp.2016.05.28.2.563
- [4] J. H. Park, S. Y. Kang & H. S. Jeon. (2013). The Effect of Using Smart-Phones on Neck and Shoulder Muscle Activities and Fatigue. *Physical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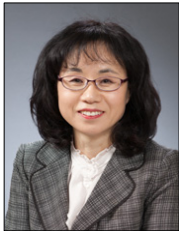
- Korea, 20(3), 19-26.
DOI : 10.12674/ptk.2013.20.3.019
- [5] B. Y. Kim. (2013).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Youth's Sociality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4), 208-217.
DOI : 10.5392/jkca.2013.13.04.208
- [6]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7). *Internet and dependency survey results of 2016*. Seoul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7] M. J. Rho, J. H. Kim & J. B. Lee.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Smart-Phone and Service Convergence.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5(4), 59-77.
- [8] S. B. Park & H. S. Hwang. (2014).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on Smart Phone Addiction : Focused on the Application Us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4), 289-311.
- [9] O. H. Kweon. (2017). *The Influence of Early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on Mobile Phone Dependency: with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Hansei University, Gunpo.
- [10] M. K. Hwang.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 [11] S. N. Kim & H. W. Kim. (2004). A Study on Teenagers' Mobile Phone Addict.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4(4), 88-116, 2003.
- [12] S. B. Li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ity and Stress Coping Styl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68-105.
DOI : 10.15709/hswr.2017.37.1.68
- [13] Y. R. Lee. (2013). The Impact of Family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eer.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0(0), 99-125.
- [14] J. S. Lee & S. Y. M. (2007). A Study of Adolescents' Peer Relation and School Life Mal Adjustment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use and Addicti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67-86.
- [15] Y. M. Lim.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163-174.
DOI : 10.5934/kjhe.2014.23.2.163
- [16] J. H. Kim. (2012). The Effects of Parental Factors, Friend's Factors and Personal Factors on the Mobile Phone Dependency of Youth Mediated by Mobile Phone Us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3), 97-120.
- [17] S. Y. Lee, H. S. Kim, C. G. Che, S. G. Oh & Y. N. Kim. (2002). *Adolescents' cellular phone using and it's effects on them Research Report 2002-1*. Institute of Sociomental Health. Seoul :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 [18] M. Y. Huh.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19] 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 : 10.1007/bf02202939
- [20]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tator-Mek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7-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21] H. J. Kim & E. S. Hwang. (2012). The Effects of Peer-attachment and Impulsiveness of the Adolescence on Inappropriate Use of Cellular Phones. *Forum for Youth Culture*, 32, 7-38.
- [22] S. J. Chang, S. W. Song & M. N. Cho.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Pe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61-187.
- [23] H. J. Kim & S. H. Hong.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6(1), 413-429.
DOI : 10.20972/kjee.26.1.201503.413
- [24] S. Y. An & H. S. Lee. (2009). The Effects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Family Variables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3), 163-176.
- [25] S. J. Chang, S. W. Song & M. N. Cho.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on Mobile Phone Dependency: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Attachment to Pe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61-187.

- [26] S. J. Woo. (2013). Original Articles :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Neglect,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583-590.

저 자 소 개

김 광 숙(Kwang-Sook Kim) [정회원]



- 1997년 8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사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상담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흥진고등학교

<관심분야>: 아동, 청소년, 가족

신 경 실(Kyoung-Sil Shin) [정회원]



- 2011년 2월 : 한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상담학석사
- 2015년 8월 ~ 현재 : (법)동광원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

이 훈 민(Hoon-Min Lee) [정회원]



- 1996년 2월 : 동남보건전문대 임상병리학과
- 2008년 8월 : 대구사이버 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이학사
- 2014년 2월 : 한세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상담학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